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3월 14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복지서비스과	담당자	• 복지서비스팀장 이현경 ☎440-1551 • 담당자 원명희 ☎440-1555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고독사 줄이기 위해 좀 더 촘촘히 관리

- 2021년 인천시 고독자수 256명, 1인 가구 비중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 -
- 방문·스마트기술 활용 안부 서비스 등 선제적 예방·관리활동 추진 중 -
- 안부 확인 횟수 확대, 서비스 대상 확대 등 통해 예방·관리활동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14일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 예방 및 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독사(무연고 사망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에서 고독사한 사람은 3,603명이며, 이중 인천시는 256명(7%)이 있었다.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전국과 인천시 모두 고독사하는 사람의 수도 2017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1인 가구는 전체 1,183,610가구 중 355,657가구(30.0%)에 이르며, 이 중 만 65세 이상 1인 가구는 84,850가구(23.9%)에 달한다.

인천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험계층 실태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말벗, 재가돌봄서비스, 안부 확인, 밀반찬 지원 서비스 등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가구에는 전기 미사용으로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돌봄플러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5,000가구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AI케어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간 3만 4천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신설해 운영했으며, 올해 군·구 지역특화사업으로 돌봄활동가 이웃지기 사업, 50·60 1인 위기가구 중장년 사회적 고립감 예방 프로그램 등 16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조기 발견, 상담 및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일례로 모 구에 거주하는 60대 독거노인 A씨와 80대 독거노인 B씨의 경우, 돌봄플러그 설치 후 불안감 해소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된 관리대상자 3명의 경우 신속한 입원 치료로

위기를 넘기고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시는 계속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올해는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좀 더 촘촘하게 살핀다는 계획이다.

AI케어콜 돌봄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0~60대의 고독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을 50~60대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세부 추진사항이 곧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에 맞춰 고독사 예방 정책 및 사업 발굴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인쇄물·홍보물품·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명숙 시 복지서비스과장은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사업 및 돌봄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안타까운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브리핑 사진은 11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참고 >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현황